

유채꽃길 걷고 몸국 한 뚝배기...제주의 봄 만끽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봄맞이 축제

제주

살랑거리며 얼굴을 스치는 따스한 바람과 함께 국토 최남단 서귀포에 봄이 찾아왔다. 포근한 햇볕을 받으며 제주에서 기지개를 켜 뱃꽃, 매화, 유채꽃, 복사꽃이 북으로 내달리며 전국에 봄기운을 전하고 있다.

매화와 유채꽃이 서로 먼저 봄소식을 알리겠다고 경쟁하는 사이 뱃꽃도 봄나들이 준비에 들어갔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맞이가 한창인 가운데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이 오고 꽃이 피는 서귀포에서 새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제20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와 제8회 서귀포 봄맞이 축제에 초대한다.

24~25일 5·10·20km코스 국내외 200명 참가
법환포구·영도폭포 등 곳곳서 공연·체험 행사
오늘부터 이틀간 이중섭공원 일대 봄맞이 축제
‘남극노인성제·결궁’ 등 제주 전통문화 재조명



지난해 서귀포시 이중섭공원에서 열린 제7회 서귀포 봄맞이 축제 전통문화공연.



조선시대 국가 제사 '남극노인성제' 봉행 모습.



지난해 열린 제19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에서 관광객들이 활짝 핀 유채꽃을 바라보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제20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 새 봄을 맞아 유채꽃이 지천에 널려있다. '유채꽃 바다'를 걷다 보면 마음도 유채꽃처럼 노랗게 물들 것만 같다.

유채꽃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제20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린다.

서귀포시와 한국체육진흥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서귀포시관광협회의(회장 장명선)가 주관하는 이 대회 1일차인 24일에는 주 무대인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출발해 제주올레 7코스 구간인 외돌개를 거쳐 서귀포칠십리시공원, 자구리공원, 비석거리를 돌아 종점인 이중섭거리에 이르는 코스로 진행된다.

10km와 20km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걸을 수 있다.

2일차인 25일에는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해 제주혁신도시, 고근산, 영도폭포, 서건도, 법환포구를 거쳐 다시 제주월드컵경기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참가자들은 5km, 10km, 20km코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양일 간 각 체크포인트(보목하수처리장, 서귀포칠십리시공원, 법환포구, 영도폭포)에서 거리공연을 비롯해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동아시아 플러워 워킹리그' 3개국인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해외 각국에서 200여 명의 걷기 마니아들이 참여한다.

참가비는 1만원(20명 이상 단체 8000원)이며 참가자들에게는 생수, 경품 응모권, 기념품을 비롯해 국제시민스포츠포럼 및 한국체육진흥회가 인증하는 완보증이 수여된다. 문의 (사)서귀포시관광협의회 (064-739-7201).

▷제8회 서귀포 봄맞이 축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화전놀이와 함께 제주 전통음식을 체험하는 축제다.

'복사꽃이 뚝뚝물에 빠진 날'을 주제로 23일부터 24일까지 이중섭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서귀포봄맞이축제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이석창·윤봉택)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사라져가는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와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선인들의 나눔과 미덕의 삶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복사꽃이 뚝뚝물에 빠진 날'은 봄에 피는 복사꽃이 몸국(돼지고기 삶은 물에 모자반 등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 끓인 국)을 끓이는 가마솥에 떨어지는 잔칫날을 말한다.

축제 첫째 날인 23일 오후 4시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에서 제주 문전제 재조명 전문가 포럼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이중섭공원에서 조선시대 국가 제사였던 '남극노인성제'가 봉행된다.

24일에는 오전 10시 서귀포올레매일시장부터 이중섭공원까지 서귀포봄맞이 결궁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봄이 왔음을 알린다.

또 오전 11시부터는 제주에서 혼례와 장례 등 큰 행사를 치를 때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했던 몸국과 돼지고기반을 나눠 먹는 전통음식 체험 행사를 비롯해 진달래꽃

화전놀이 재현 행사가 열린다. 또 우리나라 근대 화가의 거장 이중섭 화가를 기리는 '서귀포 은지화 그림 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소금인형, 카노푸스, 크레센도 등이 출연하는 대중문화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생강나무, 배롱나무, 졸참나무, 갈나무, 주목 등 20여 종 3000여 그루를 무료로 나눠주는 '꽃나무 나눔행사'를 통해 한반도에 가장 먼저 찾아온 봄기운을 전한다.

축제가 열리는 이중섭공원 주변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비롯해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서귀포칠십리시공원, 자구리해안 등을 연결하는 '작가의 산책길'이 조성돼 있어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 장소로도 적격이다. 문의 서귀포 봄맞이 축제 조직위원회(064-733-2345).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제주신보 김문기 기자

신필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내 집같은 편안함
고급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명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IANG HOTEL